

# 近年韓國에서의 書誌學研究

沈 喆 俊  
中央大圖書館學科 副教授

1

近年 韓國에서의 書誌學 研究는 거의 韓國典籍을 研究의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理論研究는 거의 없고 過去의 圖書 및 古文書 등을 分析한 傾向만이 짙다. 그 一面을 들면 海外에서 論議되고 있는 Bibliography란 果然 東洋의 경우, 무엇을 뜻하는가 方法論으로는 어떻게 研究되어야 하겠는가 등 몇 가지 論考가 보일 뿐 거의 過去의 典籍研究이다. 이를 制度面으로 보면 册房과 書肆와의 關係, 貫册制度에 대한 性格 등 書史學的인 要素를 들 수 있겠고, 知的인 面(intellectual bibliography)으로 보면 解題와 書目學 등의 範疇에 屬하는 것이고, 形質面(physical bibliography)으로 보면 印刷技術史와 古文書學, 그리고 校勘學, 板本學 등에 關係되는 研究結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를 一瞥해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2

‘Bibliography’의 東洋의 解釋: 1967년에 安春根教授의 著「韓國書誌學」이 出版되자 千惠鳳教授의 「書誌學의 體系」가 「國會圖書館報」에 실렸는데 여기서 安教授의 同著를 評하여 “分析書誌學(analytical bibliography)의 廣義의 書誌學에 關係한 說만을 援用하고 體系書誌學(systematic bibliography)에 該當하는 書目 및 그 解說에 對하여는 過少히 評價되었다”고 論評한 글이 실렸다. 이것은 安教授의 著를 評하기 위해서 써진 글 이라기 보다 千教授 自身이 平素에 생각해 오던 「書誌學의 體系」에 方點을 둔 글이다. 書誌學의 體系속에서 千教授는 體系書誌學이 곧 東洋在來의 目錄學이요, 分析書誌學中에서 形態書誌學(material bibliography)은 곧 ‘板本學’에 該當되고 原文書誌學은 校勘(讎)學에 該當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日本學者 長澤規矩也氏의 “書誌學에 가장 가까운 內容을 가진 것이 目錄學”이라는 論及과는 그 概念이 位差가 있다. 即 長澤氏는 ‘目錄學과 bibliography를 對等’ 시키는데 비해 千教授는 ‘體系書誌學과 東洋在來의 目錄學과 對等’ 시키 點이 다르

다. 그러나 이것이 Bohdan S. Wynar의 書誌學의 定義에서 physical bibliography에 있어서의 descriptive, comparative, historical, technical, analytical, textual 등 6 區分, intellectual bibliography에 있어서의 literary history, annotate, abstract, catalogue, classification, indexing 등의 6區分을 東洋 資料와 對比시켜 얻어진 論及인지는 明白치 않다.

書史學(literary history): 書史學에 關하여는 圖書集 散史와 聯關된 癸未字本の 傳來 樣相, 書院의 實記, 貫册制度 등을 들 수 있다.

金元龍 教授는 解放直後 日人の 蒐書속에서 偶然히 癸未字本 「十七史纂古今通要」(卷 16.17)를 購入한 일이 있었음<sup>2)</sup>을 밝힌 글에서 宋 錫夏氏도 「北史詳節」數册을 求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金教授의 「十七史纂古今通要」는 古書肆 金某氏에게 庚子字本「資治通鑑」과 交換되어 넘어졌으며 當時 李秉岐教授도 癸未字本을 한 책을 가지고 있었으나 6.25事變後 이 세 가지는 모두 行方이 杳然하다는 것을 論及하고 있다.

그리고 書肆와 册房의 區別에 對하여 從來에는 異名 同意로 解釋되어 왔으나 鄭亨愚教授는 「書肆에 대한 몇 가지 問題點」이란 論考에서 “册房은 工夫房의 뜻을 가진 것이 「春香傳」에 나타났고, 政廳에 附屬된 會計員이 留宿하는 事務室로 쓰여졌던 것이 「牧民心書」에 나타났으며 「實錄」에도 佛書의 刊行이었음을 밝힘으로써 ‘書肆’와 ‘册房’과는 전혀 關係없는 곳<sup>3)</sup>이라고 論及하고 있다.

書院의 運營을 알 수 있는 記錄으로는 安春根教授의 「院中日記」를 들 수 있다. 安教授는 이 論考에서 名家들이 그 전에는 書院에 祭物代身 書札을 보던 일이 있었다<sup>4)</sup>고 하며, 이 書札을 통해 書院의 運營面을 알 수 있는 것은 幸이라고 論及하고 있다. 이 論考의

1) 千惠鳳, “書誌學의 體系”, 國會圖書館報. v.5. no.5. p. 15.  
2) 金元龍, “癸未字補遺”, 書誌 v.1. no.1. p.37.  
3) 鄭亨愚, “書肆에 대한 몇 가지 問題”, 書誌學, 2輯. p.48.  
4) 安春根, “院中日記”, 書誌學, v.3. p.22.

着想은 書札의 樣式이 한 祭物로 代行되었다는 點이다.

賁冊制度에 關하여는 安春根 教授의 「韓國賁冊業變遷考」를 들 수 있다. 이 論考에서는 一般的으로 有閑 婦女들이 消日거리로 읽기 위해 賁冊制度가 생겼으리 라고 했으나 옛날에는 婦女子의 讀書를 歡迎하지 않았다는 點, 冊이 매우 貴하고 冊값이 너무 높아서 個人의 힘으로는 購入하기 어려웠다는 點 등을 들어 '消日거리의 論이 當치 않다'<sup>5)</sup>고 反論을 提起하고 있다. 李朝의 社會에서는 小說속에 「泰西新史」나 「孔子言行錄」같은 것이 있었으며, 賁冊은 大體로 기름칠을 했으며 表紙도 튼튼하였고 賁冊料는 一夜一錢씩이었다고 한다.

要컨대 6·25事變以前에는 韓國의 傳來活字로 찍은 가장 오래된 癸未字本이 國內에 3書가 있었다는 點, 書肆가 곧 冊房이 아니었다는 點, 書院의 祭物로 書札을 代用시킬 수 있었으며 그를 通해 書院의 運營相을 알 수 있는 點, 賁冊이 결코 有閑婦女의 消日거리가 아니었으며 冊에 기름칠을 한 것은 오래 保存하기 爲한 手段이었음을 알 수 있다.

解題類(annotated bibliography) : 解題類에 對하여는 比較的 論及이 많았다. 그러나 이中에서 몇가지 만을 추려 보면 「祖堂集」 「東文粹」 「天命圖」 「奇高峯遺著」 「老乞大」 「成宗命撰東文選」 「東國正韻入手經緯」 「東國地圖」 「江都地圖」 「朝報와 京報」 「主制羣徵」 「養蠶經驗撮要」 등에 대한 研究이다.

「祖堂集」에 關한 研究는 閔泳珪 博士에 依해 이루어졌다. 閔博士는 「景印祖堂集引」에서 「諸祖師頌」文에 依據 '西天二十八祖說'을 北宋에서 더 遡及될 수 없을<sup>6)</sup>을 밝히었다. 그리고 「東文粹」에 關하여는 筆者의 論及을 들 수 있을 것이다. 「東文粹」는 成三問이 生存時에 東人文을 엮어 「東人之寶」라고 이름지었으나 被禍로 이루어지 못한 것을 金宗直이 이어 이루어 「東人粹」로 하였으니 纂修時期는 世宗~端宗間으로 보아야 하나 再修하여 刊行된 時期는 弘治元年이었으며 初刊本은 乙亥字로 이루어졌고, 體裁는 「唐文粹」에 依해서 詩를 없애고 表記·序·銘 등의 文만을 모아 「靑丘風雅」를 模倣해서 文集을 粹集한 것으로 理(內容)를 重視하였으며 「東國文鑑」과 함께 「東文選」의 先驅가 되었음<sup>7)</sup>을 밝히었다. 그리고, 「天命圖」에 關한 研究는 李載喆 教授의 試圖로 이루어진 것이다. 1554년에 이 「天命圖」가 編成되었다는 事實과 性理學의 理氣二元論의 立場을 取하면서도 '氣'보다는 '理'를 重視한 天命圖였다<sup>8)</sup>는 것이다. 그리고, 順菴 安鼎福의 著述은 여러 圖書館의 書目을 綜合해 보면 近 200種으로 되어 있으나 鄭駉謨 教授와 筆者가 共同으로 都下에 散在한 그의 著述을 調査한 結果, 著書는 23種, 雜文은 60餘

種일뿐, 그밖의 것은 모두 他人의 著를 轉寫한 筆寫本이었음<sup>9)</sup>을 밝히었다.

奇高峯의 遺著 11冊 6種에 대하여는 姜周鎭 博士의 論考가 있다. 이는 刊年 編纂經緯 및 內容에 대한 解題이고<sup>10)</sup> 張基楨 博士의 奎章閣所藏 漢語 老乞大 및 諺解本에 對한 研究에서는 「老乞大」가 表音方法에서만 아니라 各本이 當時의 音을 한글로 表記했다는 點에서 中國聲音의 時代의인 研究資料로서도 높이 取扱되어야 한다<sup>11)</sup>고 評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肅宗命撰 「新撰東文選」에 關한 論考는 이미 日政時代에 이루어졌지만, 그 以前에 舊撰으로 이루어진 「成宗命撰의 東文選」에 대하여는 全혀 論及이 없었던 것을 筆者가 究明한 것으로서, 이것은 崇儒의 標本이 될 詩文을 類聚해서 「文選」 「唐文粹」 「文館詞林」 등을 彷彿케 할 程度로 龐大하게 試圖된 巨作이다. 이것은 「八道地理志」에 넣기 爲하여 엮여진 史實을 밝힌 것이다. 이 詩文은 崔致遠의 것 한 두편을 除하고는 모두 麗末鮮初의 것으로 「三國史記」와 「桂苑筆耕」에서 採錄한 것이 많다.<sup>12)</sup>

그리고, 從來에 傳來本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看做되었던 「東國正韻」의 原本 全 6卷이 沈敎萬씨의 所藏本에 있었다는 事實이 世上에 알려져 學界의 驚動을 일으켰으며 이 책의 入手 經緯에 대하여 孫成祐씨의 紹介가 있었다.<sup>13)</sup> 또한, 李丙巖 博士의 「東國地圖」에 關한 研究도 있었다. 이 地圖는 肅宗 6年부터 英祖 28年사이의 鄭尙駉의 製圖로서 西洋의 製圖法에 全혀 影響을 받지 않은 獨創의인 作法으로서 이는 100里縮尺法에 依해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이 地圖에는 五行思想을 浮刻시킨 彩色이 있고, 當時의 山脈, 水陸大路, 烽燧, 城堞, 營邑, 驛堡의 表示가 이루어진 것으로, 技法은 金正浩씨의 「靑丘圖」와 「大東輿地圖」가 나오기 前의 가장 精要한 分合圖임을 밝히고 있다<sup>14)</sup>.

5) 安春根, "韓國賁冊業變遷考", 書誌學. v.6. p.8.  
6) 閔泳珪, "景印祖堂集引", 曉城趙明基 博士華甲記念佛敎史學論叢, 附錄. p.9  
7) 沈喞俊, "「東文粹」에 대하여", 書誌學. v.3. p.91.  
8) 李載喆, "天命圖說에 대하여", 한국비블리아 v.2. p.36.  
9) 沈喞俊, "順菴安鼎福研究序說 一특히 그의 生涯와 著述을 中心으로—", 人文學研究. v.1. pp.23-32.  
10) 姜周鎭, "奇高峯先生의 遺著에 대하여", 書誌學. v.6. pp.43-55.  
11) 張基楨, "奎章閣所藏漢語老乞大 및 諺解本에 對하여", 亞細亞學報, v.1. p.68.  
12) 沈喞俊, "成宗命撰東文選에 對하여", 書誌學. v.2. p.18.  
13) 孫成祐, "東國正韻의 發見과 影印에 對하여", 書誌學. v.5. p.6.  
14) 李丙巖, "鄭尙駉와 東國地圖", 書誌. v.1. no.1. p.14.

그리고 李博士는 「江都地圖」에 관하여는 研究한 바 있었다. 同圖는 島內五十墩臺中에서 西北隅의 鵝城墩이 있는 것으로 보아 上限은 英祖1年(1725), 摩尼, 吉祥의 兩水사이에 있는 「船頭堰」의 表示와 留守 洪遠變의 架設排水의 記事로 보아 下限은 哲宗12年으로 볼 수 있다고 作圖年代를 推定하고 있다.<sup>15)</sup> 그리고 中央命令을 示達하던 「朝報」와 「京報」에 對한 機能面의 考察이 任鍾淳教授에 依해 이루어졌다. 그에 依하면 「朝報」는 高麗 明宗8年(1178)에 벌써 있었고 「京報」는 高宗5年 것 부터 實物이 傳해지고 있었다는 것<sup>16)</sup>이다.

또 하나 注目되는 것은 이제까지 仁祖年間에 天主敎 彈壓으로 차취를 감추었던 「主制羣徵」이 日本의 東洋文庫에 그 重刊本이 所藏되고 있는 것을 金斗鍾博士가 資料를 入手한 바 있고, 이 資料에 依據해서 筆者가 同書를 分析, 天文·曆學과 結付시켜 世宗以前까지의 우리 나라에 輸入된 曆象은 Renaissance를 거치지 않은 中世 西洋天文學이 中國을 거쳐 우리 나라에 들어 왔음을 論證하였고, 仁祖年間에 輸入된 湯若望(Adam hall)의 「主制羣徵」에 나타난 「天動說·太陽中心說·地轉說」등은 Copernicus 以後 約 100년뒤인 仁祖 22年에 傳來된 것으로 金錫文과 李潔이 이를 傳承하고 洪大容·朴趾源·丁若鏞 등이 이를 展開시킨 史實을 밝히었다.<sup>17)</sup> 그리고 「養蠶經驗撮要」에 대하여는 李光麟教授의 論考가 있다. 그는 이 撮要가 「農桑輯要」를 基本으로 그 內容의 一部를 取捨選擇해서 吏讀로 翻譯되어진 것<sup>18)</sup>이라고 考證하고 있다.

要컨대, 이제까지 「景德傳燈錄」에 依據해서 「西天二十八祖說」이 提起되었으나, 「祖堂集」에 依據 그 源流가 北宋을 遡及할 수 없다는 論이 있었고, 成三問의 東人之寶가, 被禍로 因해 世上에 나오지 못하다가 金宗直이 이를 이어 「東文粹」를 엮은 來歷, 그리고 「東國文鑑」과 「東文選」의 先驅가 된 事實, 「氣」보다 「理」를 重視한 「天命圖」의 性格 分析, 200餘로 看做해 오던 安鼎福의 著述이 實際로 著書23種, 雜文이 不過 60餘種이었다는 調査의 結果, 奇高峯의 遺著 11冊 6種에 對한 解題, 老乞大의 한글 表記, 中斷되었던 「東文選」研究의 繼承, 「東國正韻」의 發見, 100里縮尺法을 쓴 「東國地圖」의 技法에 대한 優秀性, 잃어졌던 「主制羣徵」의 發見과 分析, 그리고 天文曆學에서의 影響, 「農桑輯要」를 基本으로 한 「養蠶經驗撮要」등은 典籍研究에 있어 實로 그 淵源을 밝히는데 貢獻이 적지 않았었다.

書目學(catalogue) : 이에 관한 資料는 여러 圖書館에서 刊行된 書目類가 많으나(最近 「도서관」報 所載 姜周鎮博士의 「韓國書誌의 近況과 課題」와 千惠鳳

教授의 「韓國 圖書의 整理方法에 대하여」(?))를 參照할 것) 書誌學者들의 直接 參與가 別로 없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省略한다. 다만, 金岸基博士는 書目을 作成할 때 分類·板本·金石文·附錄·上古金石文目 등의 解説을 붙여야 할 것이라고 「高麗史藝文志」의 例를 들고 있다.

分類學·批評의抄錄 및 索引類(classification, abstract indexing) : 書誌學者들의 參與가 別로 없고 또한 다른 分野에서도 擔當하여 發表하므로 이 亦是 省略한다.

3

印刷技術史(technical bibliograph) : 이 方面의 研究로는 洗草와 挿畫·石版印刷·石印 등을 들 수 있다. 李光麟教授의 「紙物生産과 그 消費」에 대한 글이 發表되고 이어서 洗草에 關心을 가진 것이 金約瑟씨의 論考이다. 이를 보면 洗草가 생긴 것은 太北堂이 專擔하여 編修했기 때문에 私感이었다는 公論이 그 動機였다고 한다. 따라서 洗草의 目的은 機密濫洩의 防止였으며, 종이의 再生을 하기 爲한 措置이기도 하였다. 最初의 洗草는 燕山君 5年(1499)부터라 하며 同年 2月에 「成宗實錄」을 撰進하는 글에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洗草場所는 지금의 彰義門밖 遮日岩이라 한다.<sup>19)</sup>

挿畫에 對하여는 金元龍教授의 論考가 있다. 金教授는 全北高敞의 烟起寺에서 出版된 「大目蓮經」속에 비로소 挿畫가 나타난다고 하며 刻工은 알 수 없으나 그는 16世紀 前半期에 살고 있었던 숨은 偉대한 藝術家였다<sup>20)</sup>는 것이다. 그리고 石版印刷에 대하여서는 李謙魯先生의 研究가 있다. 그는 個人文集으로서 石版印刷을 最初로 한 것은 李起載의 私邸인 活來亭에서 發刊된 「熬隱遺稿」가 嚆矢이며<sup>21)</sup> 이의 時期는 1909年(?)이라고 하는데 이는 郵票를 石印하기 위한 施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다음은 印章에 대한 研究이다. 李家源博士는 自己의 書齋, 「寶阮之齋」中에 所藏하고 있는 石印「翰墨緣」과 「七十二鷗州堂」「今文之家」는 秋史의 親筆을 彫刻한<sup>22)</sup>것이라 한다.

古文書學(palaeography) : 白麟教授는 그의 論文「古

15) 李丙森, 「江都地圖解題, 書誌,」 v.1. no.2. p.1.  
 16) 任鍾淳, 「朝報와 京報에 대하여,」 書誌學, v.2. p.23.  
 17) 沈喆俊, 「天文·曆書와 主制羣徵,」 圖書館學, v.2. p.125.  
 18) 李光麟, 「養蠶經驗撮要,」 歷史學報, v.28. p.37.  
 19) 金約瑟, 「洗草에 대한 文獻 및 地理的 考察,」 書誌學, v.1. p.31.  
 20) 金元龍, 「嘉靖板佛說大目蓮經,」 圖書, v.9. p.52.  
 21) 李謙魯, 「舊韓末石版印刷甲考,」 書誌學, v.6. p.60.  
 22) 李家源, 「阮印三方을 借用하명서,」 書誌學 v.6. p.85

文書의 研究와 그 整理方法에 대하여 比較의 仔細이 記述했다. 여기서는 주로 古文書의 蒐集과 文書의 書式·記述된 文字·文書의 手決 등 概括的인 點을 論及하고 있다.<sup>23)</sup> 李 丙燾 博士는 唐나라 法藏이 新羅義湘에게 보낸 글월 眞本이 日本에 있다는 中國의 碩學 溥儒博士로 부터의 書影을 받고 이를 考證한 바 題跋中에 由來가 없는 것으로 보아 副本에 屬하는 것<sup>24)</sup>인 듯하다는 見解가 있었다.

校勘學(textual bibliography) : 金 成遠의 年譜와 行狀에 依據해서 松江 鄭 澈의 「星山別曲」에 對한 著作年代를 金 約瑟씨가 밝히었는데 이에 依하여 從來 松江의 25歲時의 著作說은 根據가 없으며 28歲時의 著作이 確實하다<sup>25)</sup>고 斷定하고 있다.

以上은 印刷技術史에서의 沈草地의 踏査와 16世紀 以前의 插畫形態, 그리고 石版印刷의 導入期와 古文書의 整理 方法 및 校勘學 分野에서의 「星山別曲」의 著作 年代의 推定 등으로 從來의 論에 새로운 異議를 提起하고, 새로운 面도 開拓 推究한 것이다.

板本學(analytical bibliography) : A. 木板本의 경우 : 上世의 板本에 對하여는 金 斗鍾 博士와 千 惠鳳 教授의 論考가 보이고 있다. 「韓國古印刷技術史」에서 百濟 聖王 4年 百濟 法師 謙益이 中國 常伽那 大律寺로부터 「梵僧倍達多三藏」과 「梵本阿曇藏五部律文」을 가지고 와서 律部 72卷을 譯出한 彌勒佛光寺記事에 대하여 金 博士는 百濟 聖王 4年(526)이던 中國의 南宋時代의 梁武帝 普通 7年에 該當되는데 그 때에는 中國에 印刷術이 行해졌다는 文獻이 確實치 않으니 믿기 어렵다고 한다. 그의 論을 보면 中國에서의 雕板印書에 대한 發明은 東晉時代 或은 東晉 및 南北朝時代說도 있지만 隋朝의 開皇項부터 唐初까지의 說이 支配的이라는 點에서 이다.<sup>26)</sup> 그리고 慶州初月山 大崇福寺의 碑銘에 刻혀 있는 「東王이 詩를 印하여 贈與했다」는 句節은 否定論이 있으나 이것은 東王이 바로 新羅의 憲康王이고, 그 때에는 우리 韓國에도 印刷術이 普及되어 있었으므로 新羅인들이 鷄林의 아름다운 山水를 咏味한 詩를 모아 印刷하여 唐使에게 贈物로 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이를 肯定하고 있는 것이다.

千教授의 論考는 이와는 主題를 달리하여 金 完燮 先生의 所藏品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의 木板卷子本은 高麗 穆宗 10年(1007)에 京畿道 開豊郡 總持寺에서 開板하였음을 밝혀 냈고, 「三國遺事」所傳의 「天曆之總(摠)持岳」이 그 前身임과 同時에 이것이 始創이라고 發表했다.<sup>27)</sup>

中世에 들어와서도 朴 泳洙 教授와 金 斗鍾 博士의 論考가 보이고 있다.

朴 教授는 海印寺에 所藏되고 있는 「高麗大藏經」板은 그 內容이 他藏에 비해 「宗鏡錄」100卷이 補板되었고 宋나라 高僧의 紹興重雕大藏音, 景德傳燈錄 등은 모두 西紀 970年에 編成된 것으로 麗藏에 收藏할 수 없었을 것이며, 西紀 970年 以前 것으로 收藏되지 않은 것은 極少數로서 校勘이 더운 嚴密하여 後에 日本 및 中國本土에 輸轉되어 이 麗本을 다시 底本으로 한 것도 한 틀이 아니고 最近 「大正新修大藏經」도 거의 麗本을 基礎로 校勘된 것<sup>28)</sup>이라 한다. 그리고, 金 斗鍾 博士는 初雕大藏經 雕造論中에서 “顯宗 2年에 契丹兵이 大學 來征했을 때 顯宗이 契丹兵을 退治하기 위하여 大藏經을 初雕했다”는 記事를 믿지 않고 있으나 이것은 李 奎報가 本文을 쓴 年代는 顯宗 2年으로 부터 226年前인 것은 事實이지만 國難을 防止코자 君臣들이 함께 佛天에 盟誓하는 大藏의 祈告文이므로 根據가 稀薄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때에는 文獻이 傳해져 있었을 것이라 한다. 金 博士는 이를 적어도 顯宗2年을 지난 3, 4年頃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根據로는 義天의 「大覺國師文集」의 雕印疏에 “顯祖는 5千軸의 秘藏을 雕造했다”는 記事에 依據<sup>29)</sup>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李朝의 板本을 研究 對象으로 한 것은 金 斗鍾, 千 惠鳳, 沈 載完, 李 謙魯, 張 基權諸 教授의 論考들이 있다. 于先 金 博士는 義天의 續藏經 雕造重修本은 池內 宏 博士가 「大般涅槃經」을 義天의 原文으로 誤認하고 國寶로 指定하였으나 이는 日本 奈良市 東大寺 圖書館의 原本과 對比한 結果, 印本の 紙質이나 形態로 보아 原本이 아니라 順天 5年의 刊經都監本이라고 斷定하고 있다.<sup>30)</sup> 그리고 宋·元系의 板本과 高麗의 獨自의 板本에 對하여 論及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宋版系는 海印寺의 八萬大藏經板을 비롯하여 中末期의 官·私板本이 이 系에 많이 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中에도 瞭然한 것은 恭愍王 19年板인 星山 李氏의 私家板과 晉陽에서 重刊한 「近思錄集解」는 宋版本을 摹刻한 것이고, 國立圖書館의 一山文庫인 「佛

23) 白 麟, “古文書의 研究와 그 整理問題”, 國會圖書館報, v.4. p.

24) 李 丙燾, “唐法藏寄新羅義湘書에 對하여”, 書誌, v.1. no.2. p.71.

25) 金 約瑟, “棲禪堂遺稿와 星山別曲”, 書誌學, v.4. p.19

26) 金 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究堂, 1974. p. 25.

27) 千 惠鳳, “高麗初期刊行의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 圖書館學報 v.2. p.44.

28) 朴 泳洙, “高麗大藏經版의 研究”, 白性都 博士 頌壽記念佛教學論文集, 4292. p.453.

29) 金 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究堂, 1974. p. 62.

30) ibid., p.74.

說四十二章經護法論 등과 通文館藏本인 「經律異相」 등은 宋版을 聯想케 한다.

또한 元板本의 系統으로는 大德年間에 流行되었던 超松雪體法을 摹刻한 私家板本이 있다고 하며, 이 系統은 麗末 鮮初의 것으로 晉州牧에서 改板한 「中庸朱子或問」과 恭讓王 3年刊인 金子粹의 重刊本 「禮記」 등이 그 實例라 한다. 그리고 私家板中에서 崔瀛의 「拙藁千百」과 李承休의 「動安居士集」, 鄭直의 「雪谷詩藁」 등등은 高麗人의 獨自的인 傳統을 엿볼 수 있다<sup>31)</sup>고 論及하고 있다.

다음은 本 教授의 論이다. 千 教授는 東國大學에서 法華經 展示時에 出品된 展示品을 通하여 太祖時로부터 世宗 中年까지는 高麗本을 覆刻 또극 重刻한 寺刹 開板本系統과 成達生 등의 獨自的인 板本系統이 刊行 流通되었음을 論證하고, 高麗板本의 覆刻에 屬하는 것은 板刻이 大體로 粗雜하고 料紙도 品質이 나쁜 楮紙이며 獨自的인 板本에 屬하는 것은 儒臣 또는 王室의 發願으로 이루어진 關係로 板刻이 精巧하고 料紙도 精製의 紙를 使用하고 있다고 한다. 世宗 末年부터 官撰 字體는 體系에 屬하나 名筆의 板下로 한 獨自的인 槧本으로서 肉重한 感이었고, 成宗朝 및 燕山君 初期의 것은 興儒抑佛의 僧政이었는데도 大妃에 依한 印經이 行해졌으며 世宗以後 燕山主初까지의 現存本은 官撰과 王室佛書가 많고 寺刹本이 적다<sup>32)</sup>는 것이다.

沈教授는 「月印釋譜」 第二十一無量幢板을 評하여 이 板은 없어졌으나 板本으로는 古板에 가깝우며 廣興寺 板보다는 20年 뒤지고 있다고 하며 語法上에 있어 傍點의 消失은 있으나 古體를 固守한 點이 있다고 하며 雙溪寺本과는 틀린<sup>33)</sup>다는 點을 指摘하고 있다. 그리고 李 先生은 지금까지 春秋「綱」字(鐵活字)라고 알려져 있던 活字는 金屬活字를 意味하는 鋼字가 아니고 春秋의 經文(大字)을 指稱하는 綱字이며 鐵活字도 木活字도 아닌 木板印이 틀림없다<sup>34)</sup>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從來 藤田 亮策의 「春秋綱字 金屬活字說」을 正面으로 否認하는 反論인 것이다.

張 教授는 奎章閣에 所藏하고 있는 「老乞大諺解」와 「老乞大」와 「重刊老乞大諺解」는 表題는 類似하나 內容이 다르고 特히 諺解本에서는 한글로 表音하고 뜻풀이를 한 것이 큰 差가 있으며 漢語로 된 「老乞大」「老乞大新釋」「重刊老乞大」는 內容이 다르므로 聲音·語彙 語法을 研究하는데 좋은 資料<sup>35)</sup>라고 하고 있다.

要件대, 木板本의 경우 上世에서는 西紀 526년에 謙益이 中印度로부터 가지고 왔다는 「梵僧培達多三藏」과 「梵文阿曇藏 五部律文」은 隋時에 비로소 있었던 印刷 事情으로 보아 印刷物은 아니었을 것이고, 慶州初月山

大崇福寺碑銘에 “東王의 詩를 印하여(中國에) 贈與했다는 說은 우리 나라의 印刷術로 보아 可能할 것이로 한다.

그리고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은 木板 卷子本으로 穆宗 10年(1007)의 것이라 한다. 中世에 들어와서 지금 海印寺「大藏經」에는 「宗鏡錄」 100 卷이 補版되었고 顯宗2年 契圓兵退治를 위해 大藏經을 初雕 했다는 것도 義天의 「大覺國師文集」의 雕印疏로 보아 可能하다는 것이다. 李朝에 들어와서 池內 宏博士가 國寶로 指定한 「大般涅槃經」은 天順5年의 刊經都 監本이니 國寶로는 될 수 없으며, 法華經속에는 高麗本 覆刻板과 成達生의 獨創的인 글씨를 받은 板本이 並存하고 있었다는 事實, 「月印釋譜」 第21無量幢板은 廣興寺板보다 20年 뒤지고, 雙溪寺板과는 다른 板本이므로 「春秋綱字」도 金屬活字가 아니라 木板本이며, 老乞大도 內容의 差가 있는 板本의 많다는 것이다.

B. 活字本의 경우: 活字本에 대한 研究는 金斗鍾, 千惠鳳, 尹炳泰, 金東旭 諸教授에 依해 進行되었다.

活字에 대한 一般論으로서 金斗鍾 博士의 「近世朝鮮의 活字體의 變遷」을 들 수 있다. 金博士는 近世朝鮮의 活字體는 初期에 있어 歐陽珣 楷字體인 癸未, 庚子字가 일찍부터 改鑄되었고, 晉體·衛夫人字인 甲寅字와 蜀體 松雪字인 壬申·乙酉와 晉·蜀兼體字인 乙亥字 등이 한때는 함께 使用되다가 反元親明의 政治的인 影響으로 말미암아 얼마동안 蜀體가 利用되지 못했다는 史實을 究明하고, 壬亂以後의 訓練都監에 依한 木活字의 登場이 있었으며 孝宗·顯宗때에 이르러서 世態의 安靜에 따라 衛夫人字體인 甲寅字가 鑄造되었고, 校書館에서 晉體·楷字인 筆書體字와 또는 西歐 프린트體에 가까운 印書體字를 만들었으며 一方으로는 小行書體字인 韓構字 또는 印書體에 屬한 整理字 및 全史字들이 鑄造 되었다<sup>36)</sup>고 한다.

그리고 訓練都監字 蜀體字는 大中小活字로 되어 있어 宣祖 39年으로부터 孝宗 4年에 이르는 50年 동안에 걸쳐 經書 및 各種 詩文集을 覆印하는데 쓰이었고, 安平大君字體는 蜀體字보다 좀 떨어진 光海主 2年에 造字同5年에 이르도록 겨우 數種을 覆印하였고, 乙亥字

31) *ibid.*, p. 92.

32) 千惠鳳, “李朝前期佛書板本에 對하여”, 國會圖書館報, v. 2, no. 1. p. 66.

33) 沈載完, “月印釋譜”, 第21, 異本考. 靑丘大學論文集, v. 5. p. 52.

34) 李謙魯, “春秋綱字異論”, 圖書, v. 6. p. 76.

35) 張基權, “奎章閣所藏, 漢語老乞大 및 諺解本에 대하여 亞細亞學報, v. 1. p. 57.

36) 金斗鍾, “書體上으로 본 近世朝鮮活字體의 變遷”, 書誌 v. 1, no. 1. p. 28.

體는 安平大君體字보다 좀 떨어진 光海主 5년에 처음 보이고 甲辰字體는 乙亥字體보다 꽤 떨어진 仁祖 10년에 처음 보인다<sup>37)</sup>라고 한다.

따라서 金博士는 이를 綜合해서 第一期는 壬辰·丁酉再亂後 宣祖 35, 36年頃부터 顯宗 10(1669)년까지 約 67, 68年間에는 行書體活字가 있었고, 第二期에는 顯宗 11年(1669)부터 正祖 25年(1801)까지 約 130年間에 三籀甲寅字·韓構字·校書館印書體字·四籀甲寅子(丁酉字) 整理字가 있어 官府와 私家에서 利用되었으니 이는 金屬活字의 全盛期로 볼 수 있다고 하며, 第三期에서는 純祖 1年(1801)에서 隆熙 4年(1909)까지 約 100年 동안은 從來의 金屬活字를 繼承, 聚珍字·全史字가 鑄成되어 觀象監 木活字가 需用되었으니 이는 金屬活字와 木活字가 兼用되던 時期<sup>38)</sup>라고 하고 있다.

特殊研究로서는 千教授의 庚午字 論證이다. 世宗 32年(1450)에 鑄成된 庚午字와 文宗 2年(1452)에 鑄成된 壬申字는 混用 되고 있다는데 대해, 壬申字說을 否認하고 庚午字說을 肯定하고 있다. 이 論據로서는 世宗 下命에 依해 鑄造된 것이 아니고 文宗 即位以後에 鑄成된 것이므로 文宗 即位年의 것이어야 한다고<sup>39)</sup> 것이다. 그리고 丁丑字에 대하여는 世祖가 亡世子 德宗의 興遊를 위해 「金剛經」을 刊行할 때 同書 正文의 字本으로 鑄造한 것으로 世祖 3年(1457)에 鑄成 되었다고 하는데 이 字體는 丙辰字에 비해 작고 字體의 크기가 均整하여 精巧하다고<sup>40)</sup> 하고 있다. 그리고 仁粹大妃의 命으로 「六祖壇經」을 國譯하여 木字 300件을 印出한 것은 弘治 9年의 「眞言勸供」의 跋文에 依據해서 推定되어 이를 「印經木活字」로 命<sup>41)</sup>한 일이 있다.

그리고 尹炳泰氏는 「浮碧樓重記와 같은 活字印本들」이라는 論題로 高大 所藏 「浮碧樓重修記」에 대해 從來 學者들이 '聚珍字'라고 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하며 이것은 「倣聚珍版式 書體字木活字」라고 反論을 提起<sup>42)</sup>한 바 있다.

金斗鍾 博士는 한글 活字에 대하여 그 種類를 大分하여 甲寅字體 乙亥字·乙酉字·訓練都監字·三籀甲寅字·藝館印書體字·整理字·全史字·學部編輯局字 등 諸體가 있음을 밝히고 刊年과 種別明示<sup>43)</sup>하고 있다. 그리고 한글 小說 坊刻本의 成立에 대한 論考로 서울의 坊刻本은 憲宗 10年(1844)刊의 「演陽歌」가 最初이고 4年後인 1848년에는 完板本 「趙雄傳」이 있다는 것을 金東旭 教授가 밝히고 있다.<sup>44)</sup>

그리고 金元龍 博士는 그의 著 「韓國古活字概要」에서 過去 自身이 光海君銅字를 놓고 甲寅字를 模倣한 것이라 함은 速斷이었다고 訂正하고, 이 光海君 銅字의 字體는 未知의 것일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는

달리 從來에 前問恭作씨가 正祖元年的 五籀甲寅字인 丁酉字와 顯宗實錄字는 同一의 字體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嚴密히 보면 顯宗實錄字가 丁酉字 비슷하면서도 字劃이 더욱 楷書化 한 것을 알 수 있다는<sup>45)</sup> 것이다.

또 하나 指摘할 것은 鮎具房之進이 「三路直解」를 「文會軒. 陶字契新刊」의 跋文에 依據 「陶活字」로 보고 있으나 金斗鍾 博士는 이를 「文人들이 會合하는 契와 人格을 陶冶하는 陶」로 解釋하여 陶活字說을 否認하고 또한 日本學者들이 「論語集註」를 匏活字로 본데 대해 이것은 商人의 巧言에 不遇하다고 이를 또한 否定하고 있다.<sup>46)</sup> 이밖에도 最近에는 千惠鳳 教授의 癸未字에 대한 再極討論<sup>47)</sup>이 提起되고 있다.

要컨대, 活字本에 있어서는 一般의 庚午字와 壬申字로 混用하고 있는데 이것은 文宗即位以後의 것으로 壬申字는 있을 수 없고 庚午字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며 活字系譜에 없었던 丁丑字, 印經木活字의 研究도 있었고, 從來의 聚珍字도 「倣字珍版式筆書體木活字라고 校正해야 한다」는 論도 있고 한글 小說의 坊刻本은 憲宗 10年(1844)의 「演陽歌」가 最初의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陶活字로 보고 있는 「三略直解」와 匏活字로 보고 있는 「論語集註」小字本도 있을 수 없는 論難이라고 否定하고 있다.

4

海外 資料의 研究 : 海外資料에 대한 研究는 日本과 佛蘭西에 流出된 韓國本典籍 調査이다. 그중에서도 主로 日本資料에 대한 研究가 比較的 活潑하다. 白麟 教授에 依해 只今 宮內廳 書陵部에 藏置된 韓國本이 伊藤博文의 貸出書였다는<sup>48)</sup> 史實이 밝혀졌고, 千惠鳳 教授에 依해 足利學校와<sup>49)</sup> 內閣文庫所藏 韓國本<sup>50)</sup>의 調査가 刊行되었고 安秉禧 教授에 依해 石峯千字文 3種中 乙

37) 金斗鍾, 「壬辰亂後의 活字印本」, 震檀學報 v.29-30. 合本, p.152.

38) 金斗鍾, 「近世朝鮮後期活字印本에 關한 綜合的 考察」, 大東文化研究. v.4. pp.71-72.

39) 千惠鳳, 「庚午字攷」, 成均大論文集, v.B. p.1-7.

40) 千惠鳳, 「丁丑字攷」, 歷史學報, v.35-36 合輯, p.29.

41) 千惠鳳, 「印經木活字本에 대하여」, 曉城趙明基博士 華甲紀念佛敎史學論叢, pp. 200, 209.

42) 尹炳泰, 「浮碧樓重修記와 같은 印本들」, 圖書館學 v.3. p.82.

43) 金斗鍾, 「한글活字考」, 崔鉉培選甲紀念論文集, p.66.

44) 金東旭, 「한글小說 坊刻本의 成立에 대하여」, 東方學志. v.8. pp.54. 66.

45) 金元龍, 「李朝後期の 鑄字印刷」, 鄭土서울. v.7. pp.22 26.

46)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探究堂 1974. p.349.

47) 千惠鳳, 「癸未字와 그 刊本」, 書誌學, v.6. pp.15-22.

48) 白麟, 「伊藤博文에 貸出한 奎章閣圖書에 대하여」, 書誌學, v.1. p.19.

本이 研究되어 從來의 甲本最古說을 轉覆시켰었고<sup>51)</sup>, 姜周嶺 博士가 巴里 圖書館에 出張하여 「直指心經」을 實査한바 “活字本이 아니라 覆刻本이었음”을<sup>52)</sup> 밝힌바 있다.

方法論研究: 方法論에서는 任鍾淳 教授의 黑口에 대한 綜合的 調査<sup>53)</sup>와 筆者에 의해 屈萬里 昌彼得 合著 「板本學要略」<sup>54)</sup>과 韓非木編「四庫之門」<sup>55)</sup> 梁啓超著「古書眞僞及其年代」<sup>56)</sup> 譯書가 나왔을 뿐이다.

5

以上과 같이 近 10年間의 우리나라 書誌學者들의 研究活動은 어느 程度 있었던 것으로 看做된다. 또한 研究結果로 나타난 새로운 面의 發掘, 過去의 論을 轉覆시킨 嶄新性도 적지 않았던 것은 否定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精進한 研究에서도 個別的인 研究만이 進行되어 一部分의 極히 斷片的인 問題만이 不可避하게 다루어 졌을뿐, 여러사람의 頭腦에 依해 어느 期를 劃定하여 놓고 깊고 넓은 基盤위에서 基礎를 確固히 다지고 定立 할 수 있는 基礎的이고 體系的인 考究는 아직 試圖되고 있지 않은 感을 준다. 그것은 活字研究의 試圖만을 보더라도 「新序詳定禮文跋序」 속에 ‘鑄字印成’이라는 語句가 高宗 21年(1234)이라고 되어 있고, 「南明泉和尚頌證道歌」속에서도 鑄字語句가 있어 高宗26年(1239)에 이미 鑄字한것이 아닌가 하는

示唆을 받는데, 우리나라 書誌學者들은 實物의 發掘에 神經이 過敏한 나머지 臆測하는 傾向도 없지 않았었다 이것은 一個人의 研究의 試圖가 그릇되었다고 보다는 우리 나라에서 書誌學을 完熟히 研究할만한 與件이 充足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起因된 것으로 보여진다. 換言하면 書誌學을 研究할 수 있는 모든 資料가 한곳에 集中되어 있지 않다는 點과 科學的으로 分析해 낼 수 있는 實驗器具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例: 紙質鑑定에 必要한 施設등)인데 그 要因이 있는 것으로 看做된다.

끝으로 附言할 것은 이 拙稿가 不過週餘의 時限性에 制約되어 全資料의 半量도 蒐集하지 못하였고 읽어본 資料조차도 一瞥한 程度 였으니 紹介에 未洽한 點이 많을 것으로 안다. 讀者諸賢의 叱正을 바란다.

- 49) 千惠風, “足利學校의 韓國古典에 대하여” 書誌學 v. 2 p.31-45.
- 50) 千惠風, “內閣文庫의 韓國古活字本에 대하여” 書誌學. v.3. p.39-80.
- 51) 安 馬禧, “內閣文庫所藏 石峰千字文에 대하여”, 書誌學 v.6. p.36.
- 52) 姜 周嶺, “파리 「直指心經」을 보고와서”, 書誌學 v.5. p.3.
- 53) 任 鍾淳, “黑口論”, 書誌學, v.3. pp. 23-24. 26.
- 54) 沈 喞俊譯, “圖書板本學要略”, 서울, 中央大. 1974.
- 55) 沈 喞俊譯, “中國의 典籍”, 서울, 圖書館協會. 1971.
- 56) 沈 喞俊譯, “古書眞僞와 그年代”, 서울, 中央大, 1969.

# 各 圖書館 必携의 參考文獻

## R. R. BOWKER COMPANY

BOOKS IN PRINT: Author Index: Title Index 1974. 4 vols  
SUBJECT GUIDE to Books in Print 1974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5/e  
IRREGULAR SERIALS AND ANNUALS. 3/e

## MARQUIS WHO'S WHO, INC.

Who's Who in America, 38/e  
Who's Who in the World, 1/e

## BURT FRANKLIN

Courant, M.	Bibliographie Coreenne. 3 vols	\$ 90.00
Howorth, H. H.	History of the Mongols from the 9th to the 19th Century 4 vols.	\$ 200.00
Kerner, R. J.	Northeastern Asia, a selected bibliography: contributions to the bibliography of the relations of China, Russia, and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Manchuria, and eastern Siberia, in Oriental and European languages. 2 vols	\$ 57.50

■ 弊社에서는 上記 出版物의 韓國總販으로 註文을 拜受하고 있어오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株式會社 汎文社

서울 鍾路區 鍾路1街 40 電話 (72) 5131-33